

#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陰血 처방에 대한 연구

- 번역 및 『古今名醫方論』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成煥·李容範\*

## The Prescriptions of Enriching Blood and Nourishing Vital Essence (補陰血方劑) in 「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 focus on translation & comparative study with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 (古今名醫方論)』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Kim, Seung-Hwan · Lee, Yong-Bum

Through the translation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enriching blood and nourishing vital essence (補陰血方劑) in 「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with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we confirmed that about 50% of the sentences from 「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were quoted in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and that many of the text were not quoted unchanged, but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In organization, the prescription with the fewer number of component drugs is given first, followed by that with more component drugs, and that with similar component drugs is explained subsequentl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In the prescription notes, it is emphasized that when enriching blood, the invigorative method(補氣法) is very important and that cold or pungent herb should be very carefully used.

Key Words: enriching blood(補血), nourishing vital essence(補陰), invigorative method(補氣法),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 I. 서론

乾隆 17년(1749)부터 淸의 太醫院에서 醫學生의 교과서로 채택된<sup>1)</sup> 『醫宗金鑑』은 淸代 吳謙 등이 편찬한 것이다. 그 내용 중 「刪補名醫方論」은 임상에서

\* 교신저자 : 이용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33) 730-0668, A95005@gmail.com

1) 홍원식, 윤창렬 편저. 중보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p. 533.

활용되는 주요 처방들에 대한 중요 의가들의 方論이 수록되어 많이 읽히고 있다.

『刪補名醫方論』은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많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古今名醫方論』은 清代 羅美가 지어 1675년에 간행한 것이고, 『醫宗金鑑』은 1742년에 간행되었다.

『刪補名醫方論』卷一의 처음 부분에는 주로 補氣 처방이 수록되어 있고<sup>2)</sup>, 그 다음에는 補陰血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刪補名醫方論」 補陰血 처방에 대한 원문을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의 해당 조문과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편제상의 특이점이나 方論의 특징 및 『古今名醫方論』과의 내용 일치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방법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卷一의 당귀보혈탕 불수산 사물탕 성유탕 지골피음 서각지황탕 사생환 당귀육황탕 등 補陰血 처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의 유관 조문과 그 내용을 비교하여, ‘내용비교’의 항에서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1) ‘내용같음’ -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같은 경우. 문장 중 일부가 다르고, 문자상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수정 보충된 내용이 없고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으면, ‘내용같음’으로 평가하였다.

2) ‘수정보충’ -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거의 같으나, 加減法 方論 등의 기제에 있어서 수정 혹은 보충한 것이 있으면 ‘수정보충’으로 평가하였다.

3) ‘내용다름’ - 『古今名醫方論』에 인용된 方論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내용다름’으로 평가하였다.

4) ‘없음’ - 『古今名醫方論』에 없는 경우, ‘없음’으

로 평가하였다.

### 2. 底本

『醫宗金鑑』: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古今名醫方論』: 羅美 著.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 3. 句讀과 해석

句讀는 底本을 따랐으나, 일부 저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저자의 견해대로 하였다. 해석은 逐字번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의역을 하였다.

## III. 본 론

### 【원문】

當歸補血湯

○治男婦血虛似白虎證, 肌熱面赤, 煩渴引飲, 脈來洪大而虛, 重按則微. ○當歸二錢 黃耆一兩. 水煎服.

【集註】○吳崑曰: 血實則身涼, 血虛則身熱, 或以饑困勞役虛其陰血, 則陽獨治, 故諸證生焉. 此證純象白虎, 但脈大而虛, 非大而實爲辨耳. 『內經』所謂脈虛, 血虛是也. 五味之中, 惟甘能補, 當歸味甘而厚, 味厚則補血; 黃耆味甘而薄, 味薄則補氣. 今黃耆多數倍, 而云補血者, 以有形之血不能自生, 生于無形之氣故也. 『經』言: 陽生陰長, 是之謂耳.<sup>3)</sup>

### 【해석】

당귀보혈탕

○ 성인 남녀가 血虛한데 白虎湯證과 비슷하여, 살이 뜨겁고 얼굴이 붉고, 타는 듯 갈증이나 물을 마시며, 맥박이 洪大하면서 虛하여 깊게 누르면 미약한

2) 김성환, 이용범.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7. 20(1). p. 74.

3)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 270.

증세를 치료한다. ○ 당귀 2돈, 황기 1냥.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吳崑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血이 實하면 몸이 서늘하고 血이 虛하면 몸이 뜨겁게 된다. 간혹 굼주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여 陰血이 虛하게 된 것을 陽만을 치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 이 증상은 순전히 백호탕증인데, 다만 맥이 大하면서 虛하고, 大하면서 實하지는 않은 것으로 감별이 될 따름이다. 『內經』에서 이른바 ‘脈이 虛하고 血이 虛하다는 것’이 이것이다.<sup>4)</sup> 五味가운데 오직 甘味만이 補血 수 있다. 당귀는 味가 甘하면서 厚하니, 味厚하면 補血하고, 황기는 味甘하면서 薄하니, 味薄하면 補氣한다. 지금 황기가 양이 많아 몇 배인데 보혈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형체를 가진 血은 스스로 생성될 수가 없고, 無形의 氣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內經』에서 말한 ‘陽生陰長’<sup>5)</sup>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일 따름이다.”

####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같다. 다만 주처에서 ‘治男婦血虛似白虎證, 肌熱面赤’이 『古今名醫方論』에는 ‘治男婦肌熱, 面赤’으로 되어 있고, 집주에서 ‘但脈大而虛, 非大而實爲辨耳.’가 『古今名醫方論』에는 ‘但脈大而虛, 非大而長爲辨耳.’로 되어 있다. 또한 약물설명부분에서 『古今名醫方論』에는 ‘五味之中, 惟甘能補’가 없고, ‘當歸味厚, 爲陰中之陰, 故能養血. 黃芪則味甘, 補氣者也’로 되어 있다. - 내용같음.

#### 【원문】

佛手散

○治妊娠胎動下血, 或因傷動, 子死腹中, 下血疼痛, 口噤欲死. 服此探之, 不損則痛止, 已損則立下. 及橫生倒生, 交骨不開, 產後血暈昏亂, 崩中金瘡<sup>6)</sup>, 去血過多等證. ○當歸二兩或三兩 川芎一兩. 上剉粗末, 合均,

每服五錢, 水一盞, 酒半盞, 煎八分, 熱服. 未效再服. 加敗龜版一具, 梳髮一團, 名開骨散.

【註】命名不曰歸芎, 而曰佛手者, 謂此方治婦人胎前, 產後諸疾, 如佛手之神妙也. 當歸, 川芎爲血分之主藥, 性溫而味甘辛, 以溫能和血, 甘能補血, 辛能散血也. 古人俱必以當歸君川芎, 或一倍或再倍者, 蓋以川芎辛竄, 捷于升散, 過則傷氣, 故寇宗奭曰: 不可單服久服, 亦此義也. 然施之于氣鬱血凝, 無不奏效, 故用以佐當歸而收血病之功, 使瘀去新生, 血各有所歸也. 血既有所歸, 則血安其部, 而諸血病愈矣. 至妊娠胎動, 胎傷下血, 非血壅胎傷, 卽血亂妄下. 服此以探之, 血亂胎未動者, 血順則痛止, 血壅胎未損者, 血行痛止, 則胎因之而安也; 已動已損者, 血得順行, 則胎亦因之而順下也. 橫生倒生, 因用力太早, 或誤服催生之藥, 致氣逆血亂, 亦用此以調之. 產後崩中金瘡, 亡血昏冒, 亦用此以補之. 子死腹中, 腹痛欲死, 亦用此以逐之. 已上諸病, 皆血病而氣不虛者也. 若夫氣虛難產, 產後血脫, 脣面黃白, 少氣煩亂, 動則昏冒, 若誤與此, 反致立敗, 則必倍加人參, 速固無形之氣, 以救有形之血也. 至于交骨難開, 加龜版梳髮, 下輸陰道; 寒加薑桂, 熱加黃耆, 汗加桂枝, 搗加荊穗, 又當以意消息, 加減可也.

#### 【해석】

불수산

○ 임신하여 태아가 흔들리고 하혈하는 것을 치료한다. 간혹 손상되거나 과격하게 움직여서 태아가 뱃속에서 죽으면, 하혈하고疼痛하며 이를 악물고 죽을 듯이 한다. 이 처방을 먹어서 그것을 가려내는데, 태아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통증이 그칠 것이고, 이미 손상되었다면 바로 나온다. 그리고 태아가 옆으로 출산하거나 거꾸로 출산하는 경우, 골반이 열리지 않는 경우, 출산 후에 피가 모자라 어지러워 쓰러지는 경우, 하혈 중에 질이 찢어진 경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경우 등의 증상에 쓴다.

○ 당귀 2냥 (간혹 3냥) 천궁 1냥. 이것을 가루 내어 합하여 고르게 섞어서, 한번에 5돈씩 먹는데, 물 1잔과 술 반잔으로 전체 양의 8/10이 되게 달여서, 뜨겁게 하여 먹는다. 효과가 나지 않으면 한 번 더 먹는

4) 素問 刺志論篇 第五十三에 나온다.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 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647.

5) 素問 陰陽應象大論 第五에 나온다.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 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73.

6) 하혈중에 창상(질이 찢어짐)

다. 조각낸 龜板 1개, 소밭(빗질해서 떨어진 머리카락) 1단을 가하면 개골산이라고 한다.

〔註〕 처방이름을 귀궁이라고 하지 않고 불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처방이 임신기와 産後의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마치 부처님 손처럼 신묘하기 때문이다. 당귀 천궁은 血分의 主藥으로, 性이 溫하고 味는 甘수하다. 溫은 和血하고, 甘은 補血하며, 辛은 散血할 수 있다. 옛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당귀를 천궁의 君藥으로 하여 한 배 혹은 두 배를 더 넣은 이유는, 천궁의 辛味가 잘 달리게 하므로 너무 빠르게 升散하여 지나치면 氣를 손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寇宗奭이 말하기를, “천궁 한 가지만 복용시키거나 오래 복용시킬 수 없다.”고 했으니 또한 이 뜻이다. 그러나 氣鬱이나 血凝에 사용하여 奏效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천궁을 사용하여 당귀를 보좌하게 하여 血病을 치료하는 공을 세우게 하고, 去瘀生新하게 한다면, 血이 본래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血이 되돌아가면 血이 그 부위를 안정시켜 모든 血病이 낮게 된다. 임신하여 태아가 흔들리거나 태아가 손상되어 하혈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원인은 血이 壅滯되어 태아가 손상된 것이거나 아니면 血이 亂動하여 하혈하는 것이다. 이 약을 먹어서 그 증상을 살피는데, 血이 亂動할 뿐 태아가 흔들리지 않은 경우는 血이 순조로워지면 痛症이 그치고, 血이 壅滯되었을 뿐 태아가 손상되지 않은 경우는 血이 운행되면 통증이 멎으니, 태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안정된다. 胎動증이 이미 생기거나 태아가 손상된 경우는, 血이 순환되면 태아 역시 그것으로 인하여 순조롭게 빠져나오게 된다. 옆으로 눕거나 거꾸로 낳는 것은 힘쓰는 것이 너무 이르거나, 혹은 출산을 촉진하는 약을 잘못 먹어서, 氣가 逆하고 血이 亂한 상태가 된 것이니, 또한 이 약을 사용하여 조절한다. 산후 하혈 중에 질이 찢어져, 출혈이 심하여 어지러운 경우에도 또한 이 약을 사용하여 補한다.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여 배가 죽을 듯이 아픈 경우에 또한 이 약으로 죽은 태아를 밀어낸다. 이상의 모든 病證은 血病으로 氣가 虛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氣虛로 인하여 難産하고, 산후에 출혈이 심하여 입술과 얼굴이 황백색을 띠고,

기운이 없으면서 煩亂하며, 움직이면 어지러운 경우에, 잘못해서 이 약을 주면 반대로 바로 실패할 것이니, 반드시 인삼을 배가하여 급히 무형의 氣를 굳건히 하여, 有形의 血을 구제하여야 한다. 골반 뼈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구판과 소밭을 가하면 産道가 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寒에는 생강과 육계를 가하고, 熱에는 황기를 가하고, 汗에는 계지를 가하고, 근육 경련에는 형계수를 가하니, 또한 마땅히 상황에 따라 가감하는 것이 옳다.

【내용비교】

이 처방은 『古今名醫方論』에 없다. - 없음.

【원문】

四物湯

○治一切血虛血熱血燥諸證。○當歸 熟地 各三錢 川芎一錢五分 白芍二錢 酒炒

上四味 水煎服。

〔集註〕○張璐曰：四物爲陰血受病之專劑，非調補眞陰之方。方書咸謂四物補陰，遂以治陰虛發熱，火炎失血等證，蒙害至今。又專事女科者，咸以此湯隨證漫加風食痰氣等藥，紛然雜出；其最可恨者，不辨熱之虛實，率加知母黃蘗，令人久服，而庸工利其有刮病之能，咸樂用之。殊不知四君子氣藥，治上下失血過多，一切血藥置而不用，獨推獨參湯，童便以固其脫者，以有形之血，不能速生，無形之氣，所當急固也。昔人有言，見血休治血，必先調其氣。又云：四物湯不得補氣藥，不能成陽生陰長之功。誠哉言也！然此湯傷寒火邪解後，餘熱留于血分，至夜微熱不除，或合柴胡，或加桂枝，靡不應手輒效，不可沒其功也。○柯琴曰：經云：心生血，肝藏血。故凡生血者，則究之于心；調血者，當求之于肝也。是方乃肝經調血之專劑，非心經生血之主方也。當歸甘溫和血，川芎辛溫活血，芍藥酸寒斂血，地黃甘平補血。四物具生長收藏之用，故能使營氣安行經隧也。若血虛加參耆，血結加桃仁紅花，血閉加大黃芒消，血寒加桂附，血熱加芩連；欲行血去芍，欲止血去芎，隨所利而行之，則又不必拘拘于四矣。若婦人數脫其血，故用以調經種子。如遇血崩血量等證，四物不能驟補，而反助其

滑脫，則又當補氣生血，助陽生陰長之理。蓋此方能補有形之血于平時，不能生無形之血于倉卒，能助陰中之血，而不能培眞陰之本；爲血分立法，不專爲女科套劑也。王好古治婦女，不論內傷，外感，胎前，產後，隨證加二味于四物中，名曰六合，未免任意牽強。

### 【해석】

#### 사물탕

○ 일체의 血虛와 血熱과 血燥로 인한 모든 證을 치료한다. ○ 당귀 숙지 각 3돈 천궁 1돈5푼 백작 2돈(주초). 이 네 약들을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張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물탕은 陰血이 병든 것을 치료하는 전문 약이지, 眞陰을 조절하거나 보하는 데에 목적을 둔 처방이 아니다. 방제서에 모두 사물탕이 보음한다고 하여, 마침내 陰虛로 인한 발열과 火炎으로 인한 失血을 치료하니, 그 잘못된 폐해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다. 또 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은 모두 이 탕제에다, 증세에 따라 아무렇게나 風證 食滯 痰證 氣證 등의 약을 가하여, 어지럽게 섞어서 처방을 내고, 그 중에도 가장 한스러운 것은, 熱證의 허실을 가리지도 않고 경솔하게 지모 황백을 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 먹도록 하니, 용렬한 의사가 그 약이 병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는 것만 이롭게 여겨 다 이러한 약을 즐겨 사용한다. 이는 사군자탕은 氣藥인데도 上下의 失血過多를 치료하는 이유와, 일체의 血藥은 놔두고 쓰지 않고 오직 독삼탕만을 사용하면서 童便으로 固脫하는 이유가, 有形의 血은 금방 생길 수 없고 無形의 氣는 급히 固脫시켜야 하기 때문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血證이 나타나면 血證을 치료하지 말고 먼저 調氣를 해야 한다고 했고, 또 사물탕이 補氣藥을 얻지 못하면 陽生陰長의 공을 이룰 수 없다고 했으니, 진실한 말이다. 그러나 이 탕제는 傷寒病에 火邪가 풀린 후 남은 열이 血分에 머무르고 있다가 밤이 되어 미열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 혹은 시호를 합하거나 혹은 계지를 가하면, 신속한 효과가 나지 않음이 없으니, 그 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柯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內經』에 ‘心은

血을 생기게 하고, 肝은 血을 저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血을 생하고자 하는 자는 心에서 그 방도를 구하고, 血을 조절하려는 자는 肝에서 그 방도를 구해야 한다. 이 처방은 肝經의 調血하는 전문 처방이지 心經의 生血하는 주된 처방이 아니다. 당귀의 甘溫은 和血하고, 천궁의 辛溫은 活血하고, 작약의 酸寒은 斂血하고 지황의 甘平은 補血한다. 사물탕은 生長收藏의 쓰임새를 갖추었기 때문에 營氣로 하여금 편안하게 경맥의 길로 다니게 한다. 만약 血虛하면 인삼 향기를 가하고, 血結하면 도인 홍화를 가하고, 血閉하면 대황 망초를 가하고, 血寒하면 육계 부자를 가하고, 血熱하면 황금 황연을 가하며, 行血시키고자 하면 작약을 가하고, 止血시키고자 하면 천궁을 가하니, 이로써 바를 따라서 활용할 것이고, 반드시 네 가지 약제의 작용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만약 부인이라면 여러 차례 脫血되었을 것이니, 調經하는 근본 처방으로 사용한다. 만약 血崩 血暈 등의 證이 있다면, 사물탕은 신속히 補할 수가 없고 반대로 滑脫을 조장하므로 또한 마땅히 補氣生血해야 하는데, 이는 陽生陰長을 돕는 이치이다. 대개 이 처방은 평상시에 有形의 血을 補할 수 있고, 창졸간에 無形의 血을 생기게 할 수 없으며, 陰 속의 血을 도울 수 있으며, 眞陰의 근본을 복돋을 수는 없으며, 血分의 치료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적으로 부인과의 상투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王好古가 부녀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內傷 外感 임신기 產後를 막론하고 증상에 따라서 사물탕 중에 두 가지 약재를 가하고, 六合이라고 명명하였으니, 제 맘대로 건강부회한 것을 면할 수 없다.”

### 【내용비교】

『古今名醫方論』에는 張璐의 인용문만 있고, 柯琴의 인용문은 없다. - 수정보충

### 【원문】

#### 聖愈湯

○治一切失血過多，陰虧氣弱，煩熱作渴，睡臥不寧等證。○四物湯加人參黃耆(一方去芍藥)。上水煎服。

【集註】○柯琴曰：經云：陰在內，陽之守也；陽在外陰之使也。故陽中無陰，謂之孤陽；陰中無陽，謂之死陰。朱震亨曰：四物皆陰，行天地閉塞之令，非長養萬物者也。故四物加知藥，久服便能絕孕，謂嫌于無陽耳。此方取參者配四物，以治陰虛血脫等證。蓋陰陽互為其根，陰虛則陽無所附，所以煩熱燥渴；氣血相為表裡，血脫則氣無所歸，所以睡臥不寧。然陰虛無驟補之法，計在培陰以藏陽，血脫有生血之機，必先補氣，此陽生陰長，血隨氣行之理也。故曰：陰虛則無氣，無氣則死矣。此方得仲景白虎加人參之義而擴充者乎。前輩治陰虛，用八珍十全，卒不獲效者，因甘草之甘，不達下焦，白朮之燥，不利腎陰，茯苓滲泄，碍乎生升，肉桂辛熱，動其虛火。此六味皆醇厚和平而滋潤，服之則氣血疏通，內外調和，合于聖度矣。

【해석】

성유탕

○ 출혈이 심하여陰과氣가 모두 부족해져서煩熱이 나고 목이 마르며, 자려고 누워도 편안하지 않은 것 등의證을 치료한다. ○ 사물탕에 인삼 황기를 가한다 (一方은 작약을 가한다).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柯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內經』에 ‘陰은 안에 있어서陽이 그것을 지켜주고,陽은 밖에 있어서陰이 그것을 부린다.’”라고 하였다. 그래서陽 속에陰이 없으면孤陽이라고 하며,陰 속에陽이 없으면邪陰이라고 한다.”

朱震亨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물탕의 약재는 모두가 음이라서 세상을 폐색시키는 명령을 행하지 만물을長養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탕에 지모 황백을 가하여 오래 먹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은,無陽을 꺼림을 말한 것일 뿐이다. 이 처방은 인삼 황기를 취하여 사물탕에 배합하니,陰虛血脫 등의證을 치료한다. 대개陰과陽은 서로 뿌리가 되어 주므로,陰虛하면陽이 붙어 있을 데가 없어서煩熱燥渴하게 되고,氣와血은 서로表裏가 되므로,血脫하면氣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자려고 누워도 편안

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陰虛한 경우에 갑자기補하는 방법은 없으므로陰을 복돋아서陽을 저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血脫의 경우에生血할 수 있는 기들은 반드시 먼저補氣를 하는 데 있으니, 이것이 ‘陽生陰長’ ‘血隨氣行’의 이치이다. 그래서 『內經』에서는 ‘陰虛하면無氣하고,無氣하면 죽는다.’<sup>8)</sup>고 하였다. 이 처방은張仲景의白虎加人參湯의 뜻을 얻어서 확충한 것이다. 옛 학자들이陰虛에八珍湯과十全大補湯을 사용하여 끝내 효험을 보지 못한 것은 감초의甘味는下焦에 도달하지 못하고, 백출의燥는腎陰에 이롭지 않고, 복령의滲泄하는 효능은生하고升하는 데 장애가 되며, 육계의辛熱은虛火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성유탕의) 여섯 가지 약은 진하고 두터워서, 화평하게 하고滋潤하게 하여, 복용하면 기혈을 소통시키고, 내외를 조화시키니,聖人の 방법에 부합된다.”

【내용비교】

이 조문의 내용은 『古今名醫方論』과 같다. - 내용 같음

【按】

사물탕 조문의張璐 주에서 사물탕은陰血受病의 전문 치료처방으로,補陰하는 처방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血病을 치료하는 방제와補陰하는 방제를 구분한다면, 당귀보혈탕에서 여기까지는 주로 당귀를 사용하여血虛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원문】

地骨皮飲

○治陰虛火旺，骨蒸發熱，日靜夜劇者；婦人熱入血室，胎前發熱者。○四物湯加地骨皮 牡丹皮 各三錢。水煎服。

【集註】○柯琴曰：陰虛者陽往乘之，發熱也。當分三陰而治之。陽邪乘入太陰脾部，當補中益氣以升舉之，

7) 素問 陰陽應象大論篇 第五에 나온다.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 91-92.

8) 靈樞 本神 第八에 나온다.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p. 85.

清陽復位而火自熄也。若乘入少陰腎部，當六味地黃丸以對待之，壯水之主而火自平也。乘入厥陰肝部，當地骨皮飲以涼補之，血有所藏而火自安也。四物湯爲肝家滋陰調血之劑，加地骨皮清志中之火以安腎，補其母也；加牡丹皮清神中之火以涼心，瀉其子也。二皮涼而不潤，但清肝火不傷脾胃，與四物加知藥之濕潤而苦寒者不同也。故逍遙散治肝火之鬱于本藏者也，木鬱達之，順其性也；地骨皮飲，治陽邪之乘于肝藏者也，客者除之，勿縱寇以遺患也。二方皆肝家得力之劑。

### 【해석】

지골피음

○ 陰虛火旺하여, 뼈가 찌는 듯하고 발열하는데, 증상이 낮에는 편찮고 밤에 심해지는 것과 부인의 熱入血室 및 임신기에 발열하는 것을 치료한다. ○ 사물탕에 지골피 목단피 각 3돈을 가한다.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柯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陰虛하면 陽이 陰부위를 침입하여 발열하는데, 마땅히 三陰을 나누어 치료해야 한다. 陽邪가 太陰 脾부위에 침입한 경우면 補中益氣湯으로 升擧해야 한다. 清陽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화는 저절로 꺼진다. 만약 少陰 腎부위에 침입한 경우면 六味地黃丸으로 대처한다. 水의 主(腎)를 壯하게 하면 火는 저절로 평안해진다. 厥陰 肝부위로 침입하여 들어간 경우면 지골피음으로 서늘하게 하면서 補해야 한다. 血이 저장되면 火는 저절로 안정된다. 사물탕은 肝病證에 滋陰시키고 調血시키는 처방인데, 지골피를 가하여 志(腎)속의 火를 清하여 安腎하는 것은 그 어미를 補하는 것이고, 목단피를 가하여 神(心)속의 火를 清하여 涼心하는 것은 그 자식을 瀉하는 것이다. 목단피 지골피는 서늘하게 하지만 축축하게 하지는 않으며, 다만 肝火를 清할 뿐 脾胃를 손상시키지 않아, 사물탕에 지모 황백을 가한 습윤하고 苦寒한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소요산이 肝火가 本臟에서 울체된 것을 치료하는 것은, 木이 울체된 것을 통달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을 따른 것이고, 지골피음이 陽邪가 肝臟에 침입한 것을 치료하는 것은 客邪를 제거하는 것으로, 도적을

내버려두어 근심거리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두 처방이 모두 肝病證에 효험이 있는 처방이다.”

###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같다. - 내용 같음.

### 【按】

이 처방은 비록 사물탕에 지골피 목단피를 가한 것이지만, 주치가 陰虛火旺이므로, 사물탕 조문의 張璠 주에서 말한 補陰 방제로 보아야 한다. 즉 주된 약제를 당귀가 아닌 지황으로 보아야 한다.

### 【원문】

犀角地黃湯(사각지황탕)

○治熱傷吐衄，使血，婦人血崩，赤淋。○生犀角 生地黃 白芍 牡丹皮。右四味，先用三物水煎，去滓，入生犀汁，熱服。

【註】吐血之因有三：曰勞傷，曰努傷，曰熱傷。勞傷以理損爲主，努傷以去瘀爲主，熱傷以清熱爲主。熱傷陽絡則吐衄，熱傷陰絡則下血。是湯治熱傷也，故用犀角清心去火之本，生地涼血以生新血，白芍斂血止血妄行，丹皮破血以逐其瘀。此方雖曰清火，而實滋陰；雖曰止血，而實去瘀。瘀去新生，陰<sup>1)</sup>滋火熄，可爲探本窮源之法也。若心火獨盛，則加黃芩，黃連以瀉熱；血瘀胸痛，則加大黃，桃仁以逐瘀也。

### 【교감】

1) 陰: 저본에는 '阻'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陰'의 잘못이므로, '陰'으로 고쳤다.

### 【해석】

사각지황탕

○ 열에 손상된, 吐血, 使血, 부인 血崩, 赤淋을 치료한다. ○ 생서각 생지황 백작 목단피. 이 네 가지 중에, 먼저 세 가지를 물에 달여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생서각즙을 타서 뜨겁게 먹는다.

【註】 토혈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勞傷 타

박상 熱傷이다. 노권상은 손상된 것을 조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타박상은 去瘀를 위주로 하고, 熱傷은 청열을 위주로 한다. 열이 陽絡을 손상하면 吐血하고 열이 陰絡을 손상하면 下血한다. 이 탕제는 열상을 치료하는 것이므로, 서각으로 淸心하여 화의 근본을 제거하고, 생지황으로 涼血하여 新血을 생기게 하고, 백작으로 혈이 妄行하는 것을 수렴지혈하고, 목단피로 破血하여 어혈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처방이 淸火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滋陰하는 것이고, 지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去瘀하는 것이다. 瘀血이 제거되어 新血이 생겨나며, 陰이 불어나서 火가 식는 것이 근본을 찾고 근원을 궁구하는 법이 될 수 있다. 만약 心火가 홀로 성하다면, 황금 황련을 가하여 熱을 瀉하며, 血瘀로 흉통이 있으면 대황 도인을 가하여 瘀를 제거한다.

【내용비교】

『古今名醫方論』에서는 柯琴의 方論을 인용하여 서각지황탕을 설명하고 있어, 여기와는 내용이 다르다. - 내용다름

【원문】

四生丸(사생환)

○治陽盛陰虛，血熱妄行，或吐或衄者。○生地黄 生柏葉 生荷葉 生艾葉 各等分。上四味，搗爛爲丸，如鷄子大，每服一丸，滾湯化服。

【集註】○柯琴曰：陰虛而陽無所附，則火炎上焦；陽盛則陽絡傷，故血上溢于口鼻也。凡草木之性，生者涼，而熟之則溫；熟者補，而生者瀉。四味皆淸寒之品，盡取其生者，而搗爛爲丸，所以全其水氣，不經火煮，更遠于火令矣。生地多膏，淸心腎而通血脈之源。柏葉西指，淸肺金而調榮衛之氣。艾葉芳香，入脾胃而擅去瘀生新之權。荷葉法震，入肝家而和藏血攝血之用。五志之火既淸，五藏之陰安堵，則陰平陽秘，而血歸經矣。是方也，可暫用以遏妄行之熱血，如多用則反傷榮。蓋血得寒，則瘀血不散，而新血不生也。設但知淸火涼血，而不用歸脾，養榮等劑以善其後，鮮有不綿連歲月而斃者。非立法之不善，妄用者之過耳。

【해석】

사생환

○ 陽이 盛하고 陰이 허약해져서, 血이 熱로 인하여 妄行하여, 吐血하거나 코피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 생지황 생측백엽 생하엽 생애엽 각각 같은 분량. 이 네 가지를 찌어서 환을 만들되, 계란만 하게 하여, 한 번에 한 알을 끓는 물에 타서 먹는다.

【註】○ 柯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陰이 허약하여 陽이 붙어있을 곳이 없으면 火가 上焦로 타오른다. 陽이 盛하면 陽絡이 손상되므로, 血이 위로 입과 코로 넘친다. 대개 초목의 성질은 생것은 涼하고 익힌 것은 溫하며, 익은 것은 補하고 생것은 瀉한다. 네 가지는 모두가 淸寒한 약재인데, 다 생것을 사용하여 찌어서 환을 만드는 것은 그 水氣를 보전하고, 불로 삶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火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한 것이다. 생지황은 기름기가 많아서 心腎을 맑게 하고 血脈의 근원을 통하게 한다. 측백엽은 서쪽을 가리키므로 肺金을 맑게 하여 營衛의 氣를 조절한다. 애엽은 방향성이 있어서 脾胃로 들어가 瘀를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생기게 하는 효능이 있다. 하엽은 震卦를 본받아서 肝계통으로 들어가 血을 저장하고 血을 통섭하는 작용을 조절한다. 五志의 火가 이미 맑아지고 五藏의 陰도 담장 안에 편안히 있게 되면, 곧 陰平陽秘의 상태가 되어, 血이 經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처방은 妄行하는 熱血을 막는 데 잠시 사용하는 것이 옳은데, 만약 많이 사용한다면 오히려 營을 상하게 된다. 대개 血이 寒하게 되면 瘀血이 흩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血이 생기지 않는다. 가령 단지 淸火와 涼血만 알고 귀비탕과 양영탕 등의 약재를 사용하여 그 뒤처리를 잘하지 않으면, 겨우 목숨만 부지하다가 죽지 않을 자 드물 것이니, 방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명령되어 사용하는 자의 과실일 따름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같으나, 『古今名醫方論』에는 권 4에 수록되어 있다. - 내용같음

【원문】

## 當歸六黃湯

○治陰虛有火，令人盜汗者。○當歸 生地 熟地 黃耆 黃芩 黃連 黃蘗。上水煎服。

【註】寤而汗出曰自汗，寐而汗出曰盜汗。陰盛則陽虛不能外固，故自汗。陽盛則陰虛不能中守，故盜汗。若陰陽平和之人，衛氣晝則行陽而寤，夜則行陰而寐，陰陽既濟，病安從來？惟陰虛有火之人，寐則衛氣行陰，陰虛不能濟陽，陽火因盛而爭于陰，故陰液失守外走而汗出；寤<sup>1)</sup>則衛氣復行出于表，陰得以靜，故汗止矣。用當歸以養液，二地以滋陰，令陰液得其養也。用黃芩瀉上焦火，黃連瀉中焦火，黃蘗瀉下焦火，令三火得其平也。又于諸寒藥中加黃耆，庸者不知，以為贅品，且謂陽盛者不宜，抑知其妙義正在于斯耶！蓋陽爭于陰，汗出營虛，則衛亦隨之而虛。故倍加黃耆者，一以完已虛之表，一以固未定之陰。經曰：陰平陽秘，精神乃治。此之謂歟！

【集註】○吳崑曰：雜證盜汗，與傷寒盜汗不同。傷寒是半表半裡之邪未盡，雜證則陰虛有火而已。彼以和表為主，此以救陰為急。故以補陰之品，佐瀉火之藥，明者辨之。

## 【교감】

1) 寤: 저본에는 ‘寐’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寤’의 잘못이므로, ‘寤’로 고쳤다.

## 【해석】

## 당귀육황탕

○陰虛하여 火가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盜汗하게 하는 것을 치료한다. ○ 당귀 생지 숙지 황기 황금 황련 황벽. 이상을 물에 달여 먹는다.

【註】 깨어있을 때 땀나는 것을 自汗이라 하고, 잠 잘 때 땀나는 것을 盜汗이라고 한다. 陰이 盛하면 陽이 허약해져 晝를 단단하게 할 수 없으므로 自汗하고, 陽이 盛하면 陰이 허약해져 安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盜汗한다. 만약 음양이 화평한 사람이라면, 衛氣가 낮에는 陽부위를 行하여 깨어있고 밤에는 陰부위를 行하여 잠들며, 陰陽이 이미 교제되어 있을 것이니, 병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오직 陰虛하여 火가 있는 사람은, 잠들면 衛氣가 陰을 행하는데, 陰虛

하여 陽과 교제하지 못하므로, 陽火가 이로 인하여 盛해져서 陰과 싸우니 그러므로 陰液이 지켜지지 못하여 밖으로 走行하여 땀이 나게 된다. 깨어나게 되면 衛氣는 다시 表로 나와서 行하여, 陰이 안정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땀이 그치는 것이다.

당귀로 養液하고 생지황과 숙지황으로 滋陰하니, 陰液이 불어날 환경을 갖추게 된다. 황금으로는 上焦의 火를 瀉하고, 황연으로는 中焦의 火를 瀉하고, 황백으로는 下焦의 火를 瀉하니, 三火가 평안하게 된다. 또 여러 寒藥 중에 黃芪를 가한 이유를 庸劣한 의사들은 알지 못하고 군더더기로 생각하고, 또 陽이 盛한 경우에는 황기를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 어찌 그 오묘한 뜻이 바로 여기에(황기를 넣은 것에) 있음을 알겠는가? 대개 陽이 陰과 싸워 汗出하여 營이 허약하게 되면, 衛도 역시 그것을 따라 허약해진다. 그러므로 황기를 배가한 것은 한편으로는 이미 허약한 表를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되지 못한 陰을 안정시키는 의미가 있다. 『內經』에서 “陰을 평안하게 하고 陽을 비밀스럽게 하여야, 精과 神이 비로소 다스려진다.”<sup>9)</sup>라 하니 이를 말한 것이다.

【集註】○吳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雜病의 盜汗은 傷寒의 盜汗과 다르다. 傷寒은 半表半裡의 邪氣가 남은 것이고, 雜病은 陰虛하여 火가 있게 된 것일 뿐이다. 상한은 和表를 위주로 삼고 잡병은 救陰하는 것이 급하다. 그래서 補陰하는 약재로 瀉火하는 처방을 보좌하는 것이니 현명한 의사들은 그것을 잘 분별한다.

##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에는 季楚重의 方論이 인용되어 있어 여기와는 내용이 다르다. - 내용다름

## 【按】

지골피음에서 여기까지는 지황을 주로 사용하여 陰虛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분류될 수 있다.

9) 素問 生氣通天論篇 第三에 나온다.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 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52.

## IV. 고찰

### 1. 편제상의 특징

『刪補名醫方論』 卷一에는 독삼탕 삼부탕 생맥음 보원탕 사군자탕 향사육군자탕 당귀보혈탕 불수산 사물탕 성유탕 지골피음 서각지황탕 사생환 당귀육황탕 황기건중탕 쌍화음 인삼양영탕 귀비탕 묘향산 천왕보심단 산조인탕 주사안신환 등 모두 22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처방들은 대체로 補養方劑에 속한다. 여기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당귀보혈탕에서 당귀육황탕까지 8개의 처방은 陰血을 보하는 처방에 해당한다.

四物湯 張璐의 주석에서는 四物湯이 陰血이 병든 것을 치료하는 방제이고, 眞陰을 조절하거나 補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柯琴의 주석에서는 사물탕의 성격을 평상시 血은 補할 수 있지만, 氣가 虛한 상태에서 血을 補하지는 못하며, 陰 속의 血은 도울 수 있지만, 眞陰을 補하지는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주치증을 분류하여 보면, 이 8개의 처방 중에서 당귀보혈탕 불수산 사물탕 성유탕 등 4개의 처방은 당귀를 주된 약제로 하는 血을 補하는 처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골피음 서각지황탕 사생환 당귀육황탕 등 4개 처방은 지황을 주된 약제로 하는 陰을 補하는 처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처방의 나열 순서를 보면 補血 방제는 구성약물의 가지 수가 적은 것부터 먼저 나오는데, 補陰 방제에서는 먼저 6개 약물로 구성된 지골피음이 4개 약물로 구성된 서각지황탕이나 사생환보다 먼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지골피음이 사물탕에 지골피 목단피를 가한 것이므로 사물탕의 가감방 뒤에 나열하는 것이 이해에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편제상에 있어서 구성약물의 가지 수가 적은 것부터 나열되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비슷한 약물 구성의 처방을 이어서 수록하고 있는데, 약물의 가지 수가 적은 처방부터 설명하는 것이나, 비슷한 약물 구성의 처방을 이어서 수록한 것은 모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方論의 특징

#### 1) 血을 補하는 데에는 氣를 補하는 것이 중요하다

補血 처방의 方論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內經』의 '陽生陰長'을 인용하여 血을 補하기 위해서는 먼저 氣를 補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당귀보혈탕은 처방의 근본 취지가 脈이 虛한 氣虛의 상태에서는 血이 스스로 형성될 수 없고, 無形의 氣로부터 생긴다는 점을 활용하여 당귀보다 황기를 많이 넣은 것이며, 당귀 천궁이 들어가는 불수산의 경우는 氣가 虛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氣가 虛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인삼을 배가하여 無形의 氣를 굳건히 하여야 有形의 血을 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물탕의 방론에서도 사물탕만으로는 氣虛의 상태에서 血을 補할 수 없고 오히려 滯脫을 조장하므로, 補氣生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물탕에 인삼 황기를 가한 성유탕의 경우에도 血脫의 상태에서 生血할 수 있는 기틀은 반드시 補氣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陰虛로 생긴 發熱 出血 盜汗의 증상은 補陰해야 한다

陰虛의 주요 증상을 발열 출혈 도한 등으로 구분하고, 發熱을 치료하는 지골피음, 陰虛 出血을 치료하는 서각지황탕 사생환, 陰虛 盜汗을 치료하는 당귀육황탕 등을 모두 補陰 처방으로 분류하고 있다.

陰虛 發熱에서는 陰虛를 三陰으로 구분하여 太陰이 虛할 때에는 보중익기탕, 少陰이 虛할 때에는 육미지황환, 厥陰이 虛할 때에는 지골피음을 써야 한다고 하여,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출혈의 증상에 대하여는 노권상 타박상 열상으로 원인을 구분하고, 열상인 경우 서각지황탕을 쓸 수 있으며, 만약 심한 경우에는 생것을 환을 만들어 약을 만드는 과정에 火를 거치지 않은 사생환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陰虛 盜汗의 病機에 대하여 밤에 陽인 衛氣가 陰分에 들어오는데, 陰이 허약하여 陽을 받아들이지 못

하므로, 陽火가 盛해져서 陰과 싸워 陰液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三焦의 火를 끄는 황금 황백 황련과 음액을 보충하는 당귀 지황으로 구성된 당귀육황탕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3) 찬 약이나 辛散의 약재는 補陰血에 慎用하여야 한다

불수산의 방론에서는 천궁의 升散하는 작용이 氣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생환의 방론에서는 妄行하는 熱血을 막는 데에 잠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만약 과용하면 營을 손상하고, 血이 寒하게 되면 瘀血이 흘러지지 않아 새로운 血이 생기지 않으며, 사생환을 사용한 후에 귀비탕이 양영탕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귀육황탕의 방론에서는 이 처방의 묘미가 찬 약 가운데에 황기가 들어간 데에 있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補陰血의 처방에는 찬 약과 辛散의 약제를 慎用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 3. 『古今名醫方論』과의 내용비교

‘내용비교’의 항목에 나타난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총 8개 조문 중에서 내용갈음으로 평가된 것이 당귀보혈탕 성유탕 지골피음 사생환 등 4개이고, 『古今名醫方論』에 없는 것이 불수산 1개이고, 수정보충으로 평가된 것이 사물탕 1개이고, 내용이 다른 것이 서각지황탕 당귀육황탕 등 2개이다.

이렇게 본다면,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에 나오는 補陰血 방제는 50%정도는 『古今名醫方論』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古今名醫方論』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나,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고, 상당부분 수정 보충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刪補名醫方論』 補陰血 方劑 부분을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편제상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성약물의 가지 수가 적은 것부터 나열하되, 비슷한 약물구성의 처방을 이어서 수록하고 있다.

2. 方論에서는 補血할 때에는 補氣를 중요시 하고, 陰虛로 생긴 발열 출혈 도한 등을 치료할 때에는 補陰을 하되, 補陰血에는 찬 약이나 辛散한 약제를 慎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古今名醫方論』과의 내용비교에서는 50%정도가 같지만, 상당부분 수정 보충하여 보다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논문>

1. 김성환, 이용범.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 2007. 20(1).

### <단행본>

1. 홍원식, 윤창렬 편저. 중보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2.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3. 羅美 著.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4.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5.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